

'90년대의 석유정책 방향

李 東 圭

(동력자원부 석유조정관)

1. '90년대 우리의 석유산업 환경

(1) 국제 석유시장 전망

- 세계 石油수요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OPEC(석유수출국기구)의존도 증가는 '90년대 중반이후 석유과동 발생 우려

	'78	'88	'95	2000
자유세계 石油수요(백만B / D)	50.2	50.8	55.3	59.8
OPEC 공급점유율(%)	49.4	42.1	48.8	50.1

(2) 국내 석유시장 전망

- '80년대 중반이후의 石油소비 급증세가 소득수준 향상으로 '90년대 중반까지는 지속될 전망

	'80-'85	'86-'89	'90-'95	'96-2000
石油소비 증가율(%)	0.5	10.7	10.8	2.8

- 石油소비 양적증가와 더불어 소비구조변화 역시 가속화될 전망

-수송 및 가정부문이 수요증가세를 주도

	'80	'85	'90	'95	2001
수송 및 가정부문비중(%)	27.5	41.2	46.8	49.9	53.7

-수요 경질화, 저유황화, 가스화등 소비구조변화 현상은 계속 심화

- 환경기준 강화로 '90년대 중반이후 저유황유 사용이 전국적으로 의무화
- 가스가 가정용 주연료로 정착
- 경제 개방화에 따라 석유산업 관련제도 개편요구 증대 전망

2. '90년대 석유정책의 주요 과제

(1) 石油 안정공급기반의 확충

- '80년대 중반이후의 油價안정세 유지에 따라 수급안정노력 이완 경향

- 최근의 석유소비 급증세, 현물시장 선호 현상등
- 구조 변화를 수반한 石油소비증가로 공급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과중한 투자부담 발생

(2) 대규모 투자 재원의 확보

- 앞으로의 투자는 소비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시설 고도화 투자가 대부분(중질유분해, 탈황등)
- 동시에 국민 복지욕구 증대로 전국적 규모의 투자사업이 필요(송유관, 가스배관망 등)
- 이에 따른 소요재원의 확보가 큰 난제로 대두

주요 투자 소요 현황

	투자 소요 전망	사업기간	사 업 개 요
정제시설 증설 및 고도화	13,710억원	1989~1992	• 정제능력 45만B/D 확충, 중질유분해 7만B/D 및 탈황 8만B/D 건설
전국송유관 건설	4,218억원	1989~1992	• 京仁구간 및 麗水~서울, 溫山~서울구간 송유관 건설
LNG 전국배관망 건설	14,321억원	1990~2001	• 천연가스 전국 환상망 구축 및 인수기지 능력 확충
석유류 추가비축	17,042억원	1990~1996	• 정부비축 60일분 수준 유지 (민간비축 30일분 별도)
투자소요 합	49,291억원	-	-

(註: 현재 계획중인 사업 기준)

(3) 새로운 소비자 욕구에 대한 수용태세 정비

- 환경문제, 안전 및 품질기준의 강화등 소비자측으로부터의 다양한 욕구 표출이 전망되며, 이에 대한 효율적 대응 필요
- 소비자의 발언권 강화로 공정거래등 새로운 차원의 공공 규제가 심화
- 환경문제등 새로운 사회적 비용증가로 인한 추가부담 수용태세 마련이 시급
 -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, 유허합량 규제등 석유제품 기준을 계속 강화할 방침.

(4) 정부 역할의 전환

- 이때까지의 정부역할은 민간기업에 대하여 효율적 투자관리를 위한 투자조정과 공급 과점화에 따른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→수급 원활화 및 가격 안정
- 앞으로의 정부 역할은 간접 규제 및 민간기업 역할의 보완
 - 법규에 의한 직접 규제의 감소
 - 투자의 대규모화에 따른 민간능력의 한계를 보완
 - 일부 투자재원 조달을 통해 정부의도를 투자자

(또는 시장 참여자)의 일원으로 시장에서 직접 구현(예: 송유관 사업)

3. '90년대 주요 석유정책 방향

(1) 석유산업의 구조 개편

- 석유분야에 관련한 무분별한 자율화, 개방화 추진 주장은 곤란
 - 소요석유의 100%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구조적 취약성
 - 국제석유시장의 주기적 과동성과 불확실성
- 우선 시급한 점은 기존 정유사를 통한 공급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, 유전개발등 상류부문 진출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임.
- 석유산업의 경쟁을 제한하고 있는 주유소 허가제, 정제업자의 유통부문 참여 제한등에 대한 단계적인 개선책을 강구하여 경쟁효과를 소비자가 최대한 향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

(2) 석유가격 구조 개편 및 규제 완화

- '86년 이후 油價조정시마다 대원칙으로 유지해온 사항이 국내油價 구조의 국제화이며, 이에 따라 현행 국내油價 구조는 거의 국제 수준에 근접되어 있음.
 - 일시적, 계절적 요인에 의한 일부 유종의 국제가격과 국내가격과의 괴리현상은 국제가격의 불안정성을 의미하는 것이지 국내가격의 불합리성을 뜻하는 것은 아님.
- 앞으로 보완해야 할 사항들
 - 저유황유와 고유황유의 가격격차를 국제수준으로 확대 (유황분 1%당 가격차 : 현행 0.36\$/B → 1~1.5\$/B)
 - 경질제품의 역관세 현상 시정 (原油관세 10%, LPG·등유·휘발유 수입관세 5%)
 - 특별소비세의 불합리성 제거 (휘발유 특소세 인하, LPG 특소세 폐지)
- 현재 우리의 가격자율화율이 20% 수준이나, B-C油 등 일부 유종에 대한 가격자율화를 계속 추진할 방침
 - B-A, B-B, 고유황 B-C油에 대해선 가격 자율화 실시 검토
 - 저유황 B-C油 중 한천 공급분에 대해선 국제가 연동제 도입방침

(3) 환경, 안전, 품질기준의 강화

- 이때까지 양적측면의 공급안정성에 주력한 나머지 환경문제, 안전문제 등 질적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음.

- 환경등 새로운 소비자 욕구에 수동적인 대응자세에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방침.
 - '92년부터 B-C유의 유황 한도치를 현행 1.6%에서 1%로 강화하여 공급
 - '92년부터 0.4% 저유황경유를 전국적으로 공급
 - 탈황등 환경관련 투자에 대해선 최대한 지원 방침
- 안전 및 품질기준 강화를 위해 정부 주도하의 안전 및 품질관리 제도를 재정립
 - 가스안전공사, 석유품질검사소 등의 국가검사기관의 기능강화 추진

(4) 석유산업 지원 시책

- 환경관련 투자유인책 실시
 - 탈황시설용 원료유에 대해 1% 할당관세 적용을 추진
 - 탈황시설용 수입기자재에 대한 관세감면을 추진
- 중질유 분해시설에 대한 투자유인책 실시
 - 중질유 분해시설용 원료유에 대해 1% 할당관세 적용을 추진
- 유전개발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
 - 유전개발시 석유사업기금의 성공불 용자지원 지속
- 주요 시설투자에 대한 자금 지원
 - 전국 송유관 건설, 전국 가스배관망 건설 등 전국적 대규모사업에 석유사업기금 최대한 지원 방침
 - 에너지 절약 시설 투자에 대한 지원 지속

□ 신간안내 □

The Petroleum Industry
in Korea 1989

- 대한석유협회 홍보실 -